

증권 다이제스트

Bank'S

최초 스마트폰 계좌 개설 시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신용이자 최저 2.99%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평생 무료수수료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30일까지 스마트폰 어플 또는 뱅크스 다이렉트를 통해 주식 계좌 개설을 한 최초 신규 고객 대상으로 '프리 포에버, 평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리포에버, 평생 무료 수수료' 이벤트 참여를 위해선 스마트폰 어플 '한국투자 주식'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뱅크스 다이렉트를 통해 방문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HTS·MTS·홈페이지로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이 자동 적용(유관기관 제비용 제외)된다.

/김문호 기자

'주주 78만명' 삼성전자 올 전자투표 첫 도입

이병래 예탁원 사장 간담회

"전자증권제도 성공도입에 최선을
홍보 강화로 불편 없도록 할 것"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0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예탁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0일 "오는 9월16일 전자증권 시대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래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도 주요 사업계획'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이 최우선 과제"라며 "시장과의 소통·협력은 물론 대(對)국민 홍보를 강화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발행부터 유통·소멸까지 증권업무의 전 과정이 전자화되는 것을 뜻한다. 실물증권 발행 및 유통조

·도난·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다.

이병래 사장은 "주주총회 시점이 되면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올해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앞으로 점점 전자투표 주주총회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특별지원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자투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하반기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새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예탁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사장은 "올해 미래에셋대우에서 신규로 전자투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예탁결제원은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를 현장에서 집계할 수 있도록 주총집계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명근 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 부장은 "삼성전자와 한진칼은 아직 계약되

어 있지 않지만 (전자투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문의해 오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올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주주가 78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오프라인으로만 개최할 경우 현장에서 주총 결과를 집계하는 데만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 원활한 업무 이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예탁원은 전자투표 신규 서비스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예탁원이 주주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 주주 알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명근 부장은 "현재 주주총회 성향이 어려운 회사들이 사설 정보 업체에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 권유 행위를 요청 중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제도권 내에서 위임장 권유 대행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배리어를 낮춰 안정성을 높인 더블찬스 리자드 ELS 등 4종 모집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연 5% ELS 등 4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22일까지 배리어를 낮춰 안정성을 높인 더블찬스 리자드 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4종을 모집한다.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 225), 유럽지수(EUROSTOX X50)를 기초자산으로 연 5.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378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 225), 미국지수(S&P500)를 기초자산으로 연 4.7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379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문호 기자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

고객응대직원보호교육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교육 과정을 오는 4월 3일에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13일까지다.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과 관련해 문제행동 소비자(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 및 법적 조치 요령과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업지 기자

대형→중형 편입株 투자수익률 '베리굿'

평균 3.5%로 종목군 중 가장 좋아
올 LG이노텍·동서 등 이동 전망

오는 3월 한국거래소(KRX)의 정기지수 변경을 앞두고 증권업계에서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코스피 대형주지수에서 중형주지수로 이동한 종목이 매년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메리츠증권증권에 따르면 지수 변경 전후(2주일)를 시점으로 대형주에

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군의 투자수익률이 평균 3.5%(케이스 중위값)로 가장 좋았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은 -0.87%(케이스 중위값)로 성과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형주지수 내 비중 상위권에 있던 종목이 대형주지수 하위권으로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수급 공백이 생기고, 반대로 대형주지수 하위권 종목이 중형주지수 상위권으로 이동하면서 중소형주 운용자금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메리츠증권증권 정다인 연구원은 "사이즈변경에 따른 기관 투자자 수급 변화는 옵션만기일 직전 일주일에서 직후 일주일에 가장 두드러졌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에 기관 투자자 순매도 압력이 강화되는 반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으로는 기관투자자 순매수 압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옵션만기일 부터 3월 만기일까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한 종목의 최고 수익이 최대 20%에 육박했다. 2015년에는 3.5% 초과수익을 냈다.

올해는 LG이노텍, 동서, 한샘, 녹십자, 만도, 효성, HDC 등이 코스피 대형주에서 중형주지수로 이동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시가총액 100위권 내에 머물렀지만 최근 주가 하락과 분할 등의 영향으로 시총이 줄어든 종목들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매년 3월 옵션만기일(올해는 3월 14일) 익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구성종목을 정기 변경한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분하며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년도 2월까지의 일평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00위 대형주, 101~300위 중형주, 그외 기업을 소형주로 분류한다. /김문호 기자 kmh@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과 제4기 현장메신저 대표들이 20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현장메신저 위촉식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현장 소비자 목소리 듣는다

금융정책 메신저 105명 위촉

금융위원회가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융정책 메신저 105명을 위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현장메신저 105명 중 7인에 대해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고 제3기 메신저의 성과와 4기 메신저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정책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확인해

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을 이해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메신저분들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줄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선발해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금융당국에 건의토록 했다.

지난해 현장메신저 건의사항은 총 182건으로 금융위는 171건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사유리 기자 yul115@

상업·업무용 부동산 3개월째 거래량↓

상가정보연구소, 1월 2만6580건 거래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거래량이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는 2만6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만7822건) 대비 4.5%, 전년 동월(3만893건) 대비 14%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9월 최저치(2만5379건)를 기록하고 10월 3만2567건으로 반등했으나, 11월부

터 지난달까지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의 거래건수도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1월 한 달 간 1만3850건이 거래돼 전월(1만3901건) 대비 0.4% 감소했고, 전년동월(1만5574건)보다 11.1% 줄었다.

상가정보연구소이선아주임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임차수가 실종된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까지 겹치며 전반적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삼성화재, 당기순익 1조571억... 1.4%↑

삼성화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4% 늘어난 1조571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원수보험료(매출액)는 18조2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억원 늘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4조7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장기보험은 12조967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보험은 5.7% 증가한 1조404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조5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투자영업이익이 주식 매각이익 증가로 전년보다 6.8% 증가한 2조136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영업효율을 판단하는 합산비율(순해율+사업비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03.4%를 기록했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탓이다.

/김희주 기자 hj9@